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24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마 4:1~11, 눅 4:1~13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34장 (왜)

오늘 배울 말씀

1.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압니다.
2.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성도를 능히 도우심을 압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 ]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 4:1)

[ ]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 ]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눅 4:3~4)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 ] 떠나니라 (눅 4:13)

말씀을 이해하기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곧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먼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줄 터이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광야에서 주어진 이러한 사단의 시험은, 첫 사람 아담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에덴동산에서 실패했던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아닌, 오직 말씀만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먼저 인간의 입장에서 고통을 체험하시고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권세잡은 자 마귀의 온갖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 4:4)

But 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Mt 4:4)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떡과 비교 하셨을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씀을 찾아 적어 봅시다(마 4:1~11, 눅 4:1~13).

1) 마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2) 마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

3) 마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2 마귀의 시험은 첫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실패했던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비교해 보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구 분	아 담	예수님
시험을 받을 장소	(　　)	광 야
시험을 받을 때의 상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　　)간 주리심
시험 이후 결과 (롬 5:17)	사망이 왕 노릇	(　　)
인류에게 미친 영향 (롬 5:19)	(　　)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됨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

3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마귀의 시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이상 적어 봅시다.

4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적어 봅시다(엡 6:11,17).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신 8:2	
월	마 4:4	
화	막 14:38	

수

고전 10:13

목

엡 5:10

금

엡 6:11

토

히 2:18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호기심 많은 한 소년이 작은 목공소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찾아 달려 들어와서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대요." "그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구나."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린 손자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얘야,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고 있니?"

손자에게 질문을 한 할아버지는 이내 구석에서 굵은 장작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냥을 그어 그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자 보아라. 이렇게 굵은 나무에 아무리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되잖니? 그런데 이제 잘 보렴." 할아버지는 바닥에서 대팻밥을 긁어 모아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나무토막을 놓아 불길을 더 크게 일으킨 후, 그 굵은 장작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굵은 장작도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를 지켜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대팻밥은 금방 불이 붙으니까 먼저 대팻밥에 불을 붙이고 그 불에 작은 나무를 얹어 가면서 불길을 더 만드는거야. 그러면 결국 굵은 나무도 타들어 가지 않니?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별것 아닌 작은 일부터 서서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유혹해 온단다."

질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므로 그 죄 때문에 큰 환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눅 23:34)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진리를 배척할 것을 미리 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신 것뿐입니다. 그들을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를 찾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원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만 예정하시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를 하나님의 '초월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악한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도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다는 처음부터 돈을 사랑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음에 맞지 않자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마음과 죄를 미리 아셨으며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유다 자신이었고 하나님은 이를 놔두신 것뿐입니다.